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12.2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英, 쿠드스軍 사령관 등 이란인 제재

- 12.14 영국은 이란의 해외 작전을 주도하는 「에스마일 카아니」 쿠드스軍 사령관, 쿠드스軍 팔레스타인 지부, 하마스·이슬라믹 지하드(PIJ)와 연결된 개인 7명에 대해 자산 동결 등 제재
- ※ 「캐머런」 외무장관은 “이란 정권의 행동은 영국과 우방에 위협을 가한다”고 부언

미주

○ 美, 홍해 후티叛軍 제재를 위해 동맹국 결집

- 12.14 언론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인 홍해에서 화물선 공격 및 나포를 자행하는 후티叛軍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결집하고 있다고 보도
- ※ 다국적 함대가 홍해에 투입되면 反美 감정 고조로 인한 중동의 정세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후티叛軍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

○ 美, 홍해서 후티叛軍 드론 14대 격추

- 12.17 홍해에서 작전중인 美軍이 예멘의 후티叛軍이 발사한 드론 14대를 격추했으며, 이와는 별개로 영국 구축함 HMS 다이아몬드도 상선을 겨냥한 드론 1대를 격추했다고 외신보도
- ※ 미국은 민간선박 보호를 위해 다국적 함대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부언

아·태평양

○ 印, 연방의사당 경비망이 뚫려 외부인 2명 난입

- 12.14 언론은 인도 연방의사당에 외부인 2명이 ‘3중 경비망’을 뚫고 난입해 연막을 터트리는 등 22년만에 의사당 경비망이 뚫렸다고 보도
- ※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체포된 2명은 소셜미디어(SNS)를 통해 알게 됐으며, 지난 여름에 의회 난입을 위해 사전답사까지 했다고 부언

- **韓 금융위, 국제회의에서 가상자산 규제 및 각국의 공조 강조**
 - 12.14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재부 및 국제통화기금(IMF)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“가상자산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각국의 공조 및 협력이 중요하다”고 강조
 - ※ “가상자산이 테러·마약·도박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내년 7월부터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」이 시행될 예정”이라고 부언
- **이스라엘, 헤즈볼라와 전면전 우려 고조**
 - 12.18 언론은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으며, 이스라엘 내부에서 레바논 군사작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*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
 - * 최근 이스라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%가 헤즈볼라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35%에 불과했다고 보도

중 동

- **이라크 야지디族, ISIS 지원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**
 - 12.14 이라크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출신 미국인 수백명은 프랑스 시멘트업체 ‘라파즈’가 ISIS의 야지디족 대량 학살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
 - ※ ’14년 ISIS는 남성 5천명을 살해하고 여성 6천명을 납치

아프리카

- **알카에다, 6년간 억류하던 인질 조건 없이 석방**
 - 12.17 언론은 알카에다 계열 무장단체에 억류되어 있던 남아공 출신 구급대원 「게르코 반 데벤테르」가 6년 만에 조건 없이 석방되었으며, 말리와 알제리 국경 근처에서 구출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보도
 - ※ 해당 지역은 극단주의 단체들의 납치가 횡행하는 곳으로, 본 건에서도 금액을 낮춰가며 계속해서 몸값을 요구했으나 인질의 가족들이 감당하지 못하자 석방

TTP, 파키스탄 페샤와르 학교 테러 사건

- '14.12.16 10:30경 파키스탄 북부 페샤와르의 軍 부설 학교에서 군복 차림으로 위장한 파키스탄 탈레반(TTP) 조직원 7명이 난입해 총기 난사
 - 10~18세 학생 132명과 교사·교직원 10명 포함 150명이 사망하고 130여명 부상
- TTP는 “파키스탄 정부의 소탕작전*에 대한 보복으로 軍이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살목적의 테러를 자행했다”고 주장
 - * '14년 6월 정부軍이 PPT 근거지인 북부 와지리스탄에서 대규모 공세를 통해 PPT 조직원 1,100여명 사살
- 이에, 「나와즈 샤리프」 파키스탄 총리는 여·야당 전체 회의를 열어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
 - TTP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6년간 유예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했으며, 전담 군사법원 설립 등 대테러 행동계획을 발표

< 파키스탄 탈레반 (TTP) >

- (결성) '07. 12 알카에다가 ‘파키스탄의 FATA(부족자치州) 지역 內 군사작전에 대한 저항 및 무장투쟁 강화’를 위해 13개 소규모 무장단체들을 연합하여 결성한 극단주의 테러단체('11.7 UN 지정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지역(FATA) 및 아프간 접경지역(쿠나르 지역 등)
- (활동수법) 부족지역內 게릴라戰 및 페샤와르 등 주요도시 폭탄테러 등을 자행, 중앙 집권적인 아프간 탈레반과 달리 각 부족별 조직이 자율적으로 점조직 활동
- (주요테러) △'07.12 라왈핀디에서 前파키스탄 총리 암살 △'11.5 페샤와르 국경수비대 대상 자폭테러 △'13.9 페샤와르에서 교회 대상 자폭테러 △'14.6 카라치市 진나국제공항 동시다발 공격 등